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8.2

미 증시, 개별 업종 차별화 속 경기 침체 우려로 소폭 하락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r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했으나, 경제 지표 부진 여파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미-중 갈등 여파로 재차 하락 전환. 이후 개별 기업, 업종별 변화 요인에 따라 보합권 등락을 보이며 소폭 하락 마감(다우 -0.14%, 나스닥 -0.18%, S&P500 -0.28%, 러셀2000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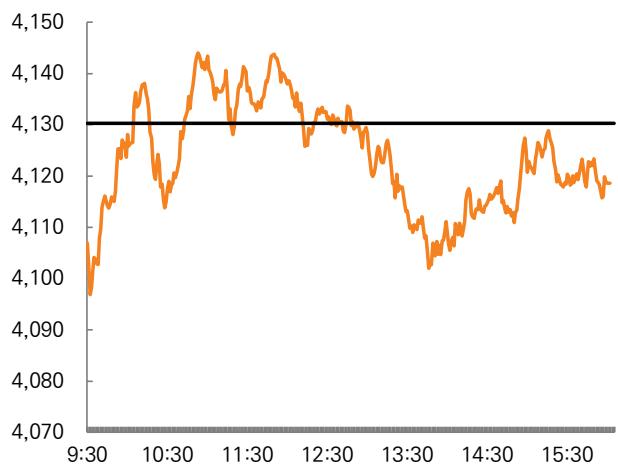
특이 종목

- 보잉(+6.13%)은 파업이 보류된 가운데 미 연방 항공청이 787 드림라이너 인도 재개 가능한 계획을 승인하자 급등. 펀터레스트(+2.62%)는 부진한 실적 발표 불구 활성 고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이 부각되자 21% 내외 급등. 마이크론(+1.10%)은 미 정부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업체 단속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니오(+2.28%)는 7월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 포드(+4.42%)는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강세. 테슬라(+0.04%)는 목요일(4일) 주총에서 주주들이 주식분할 승인 여부를 투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장중 5% 상승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14%, MSCI 신흥 지수 ETF는 0.8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8.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8% 상승.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 미 증시가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지난 주 있었던 FOMC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잠시 쉬어가는 과정을 보였으며, 그 외 업종별 변수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된 점을 감안 한국 증시도 변화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물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보합권으로 마감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반도체 종목군의 상승 원인 중 하나가 업황에 대한 기대가 아닌 중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규제 강화 이슈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된 가운데 전일 매수세가 유입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52.25	+0.03	상해종합	3,259.96	+0.21
KOSDAQ	807.61	+0.50	홍콩항셍	20,165.84	+0.05
DOW	32,798.40	-0.14	베트남	1,231.35	+2.07
NASDAQ	12,368.98	-0.18	유로스톡스 50	3,706.62	-0.04
S&P 500	4,118.63	-0.28	영국	7,413.42	-0.13
캐나다	19,692.92	휴장	독일	13,479.63	-0.03
일본	27,993.35	+0.69	프랑스	6,436.86	-0.1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①제조업지수 ②반도체 업종 ③국제유가**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가 52.8을 기록해 지난달 보다 0.2%p 하락 했으나 예상치인 52.2보다는 양호.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신규주문은 기준선을 하회한 가운데 지난달 보다도 위축된 48.0을 기록했으며 생산지수도 지난달 보다 위축되어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임. 그렇지만, 상반기 시장 하락 원인 중 하나였던 공급망 불안을 알 수 있는 납품지수가 57.3에서 55.2로 둔화된 점,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물가지수가 78.5에서 60.0으로 크게 하락한 점은 긍정적. 물론 두 지수 모두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부담이나 개선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기대 심리 또한 높아 관련 지표 발표 후 지수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한편, 미국 반도체 업종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 AMD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 기대 심리가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줬으나, 미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단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장에 미국의 칩 제조 장비를 선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물론 아직 구체적인 규정 초안이 없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칩을 인수한 한국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해야 할 듯.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를 소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지난 일요일 중국의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49.0으로 발표되었는데 7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장 활동이 예상치 못한 수축을 보임. 최근 중국의 GDP 성장을 이 위축된 가운데 이러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자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으며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 이는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해 최근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 출회를 자극.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수 소비재, 반도체 강세 Vs. 에너지, 금융 부진

보잉(+6.13%)은 파업이 보류된 가운데 미 연방 항공청이 787 드림라이너 인도 재개 가능한 계획을 승인하자 급등. P&G(+2.87%)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하락한 가운데 오늘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주요 투자회사들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그렇지만, 대부분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점이 부각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타겟(+1.33%)은 웰스파고가 과도한 하락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코스트코(+1.02%), 달러 제너럴(+1.47%), 월마트(+0.37%)도 동반 상승. 니콜라(+7.88%)는 배터리 공급업체 로메오 파워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핀터레스트(+2.62%)는 부진한 실적 발표 불구 활성 고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이 부각되자 21% 내외 급등

마이크론(+1.10%)은 미 정부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업체 단속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AMD(+2.45%), 엔비디아(+1.53%), 인텔(+1.79%)도 강세. 니오(+2.28%)는 7월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 포드(+4.42%)는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데 힘입어 강세. GM(+1.41%)도 동반 상승. 테슬라(+0.04%)는 목요일(4일) 주총에서 주주들이 주식분할 승인 여부를 투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장중 5% 가까이 강세. 엑손모빌(-2.53%)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여파로 부진. JP모건(-1.00%)등 금융주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심화로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 알파벳(-1.26%), MS(-0.97%), 애플(-0.62%)은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로 하락. 아마존(+0.33%)은 에버코어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15	대형 가치주 ETF (IVE)	-0.21
에너지섹터 ETF (OIH)	-2.70	중형 가치주 ETF (IWS)	-0.36
소매업체 ETF (XLY)	+0.50	소형 가치주 ETF (IWN)	+0.05
온라인소매 ETF (EBIZ)	+0.28	대형 성장주 ETF (VUG)	-0.14
금융섹터 ETF (XLF)	-0.89	중형 성장주 ETF (IWP)	+0.04
기술섹터 ETF (XLK)	-0.21	소형 성장주 ETF (IWO)	-0.1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7	배당주 ETF (DVY)	-0.04
클라우드 ETF (CLOU)	+0.8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1.20
미국 리츠 ETF (VNQ)	-0.81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53
주택건설업체 ETF (XHB)	+0.67	미국 국채 ETF (IEF)	+0.58
바이오섹터 ETF (IBB)	-1.46	하이일드 ETF (JNK)	+0.19
헬스케어 ETF (XLV)	-0.74	물가연동채 ETF (TIP)	+0.05
곡물 ETF (DBA)	-1.14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0
반도체 ETF (SMH)	+0.20	모멘텀 ETF (MTUM)	-0.7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필수소비재	782.83	+1.21	+2.38	+2.90
경기소비재	1,288.07	+0.51	+6.99	+17.21
산업재	809.29	+0.13	+5.33	+8.61
유틸리티	376.03	+0.10	+5.25	+2.94
IT	2,517.48	-0.20	+5.51	+12.97
통신	191.74	-0.42	+2.34	+2.38
헬스케어	1,530.65	-0.73	+0.66	+1.20
소재	487.31	-0.81	+2.79	+4.51
부동산	275.02	-0.89	+3.86	+5.56
금융	555.04	-0.89	+1.33	+4.56
에너지	585.67	-2.18	+4.03	+5.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14%, MSCI 신흥 지수 ETF는 0.8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8.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8% 상승.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상승. 다만,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는 등 증시 주변 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하락하기도 하는 등 제한적인 등락.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 속 2차 전지 업종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조선 업종 또한 실적 기대 속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 중심으로 상승을 보임. 그렇지만, 달러/원 환율의 상승을 보인 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매물 출회돼 KOSPI는 0.03%, KOSDAQ은 0.50% 상승에 그침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지난 주 있었던 FOMC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잠시 쉬어가는 과정을 보였으며, 그 외 업종별 변수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된 점을 감안 한국 증시도 변화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물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보합권으로 마감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반도체 종목군의 상승 원인 중 하나가 업황에 대한 기대가 아닌 중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규제 강화 이슈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 원인인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는 등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여기에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부담. 그렇지만, 미국의 물가 안정 기대가 높아진 점, 미국 경기의 경우 견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된 가운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견고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3.0을 하회한 52.8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52.2보다는 상회.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49.2에서 48.0으로, 생산지수도 54.9에서 53.5로 둔화. 다만, 가격지수가 78.5에서 60.0으로 크게 하락해 인플레이션 둔화는 지속

미국 6월 건설지출은 지난달 발표(mom +0.1%)나 예상(mom +0.2%)을 하회한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대비로도 지난달 발표된 9.7%보다 위축된 8.3% 증가에 그침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7월 29일 발표한 2.1%에서 1.3%로 하향 조정. 건설지출의 둔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국제유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급락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입 최대 국가인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 더불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또한 견고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2년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부담. 이런 가운데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80만 배럴에서 120만 배럴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재조정 기대 속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미국 건설지출 둔화를 이유로 3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애틀란타 연은의 GDPNow의 발표도 달러 약세 요인. 엔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상승.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남아공 란드화는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혼조 양상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단기물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상승 전환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임. 대체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 특히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지닌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지난 주말 경기 침체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 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 단기 물 상승 요인으로 작용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의 제조업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는 등 소폭 하락에 그침. 곡물은 우크라이나 발곡물 출하가 시작되자 대부분 하락. 더불어 대두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 수입 감소 우려로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3%, 철근은 0.32%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93.89	-4.86	-2.97	Dollar Index	105.396	-0.48	-1.02
브렌트유	100.03	-3.94	-0.32	EUR/USD	1.0259	+0.38	+0.38
천연가스	8.28	+0.22	-5.50	USD/JPY	131.62	-1.24	-3.71
금	1,787.70	+0.35	+2.94	GBP/USD	1.2255	+0.69	+1.76
은	20.36	+0.61	+10.87	USD/CHF	0.9501	-0.24	-1.47
알루미늄	2,430.50	-2.33	+0.91	AUD/USD	0.7027	+0.60	+1.04
전기동	7,819.50	-1.24	+4.55	USD/CAD	1.2842	+0.37	-0.03
아연	3,328.00	+0.59	+11.47	USD/RUB	62.1184	-0.19	+7.13
옥수수	609.75	-1.45	+4.67	USD/BRL	5.1798	+0.13	-3.31
밀	800.25	-1.02	+3.83	USD/CNH	6.7822	+0.48	+0.45
대두	1,406.00	-4.05	+4.68	USD/KRW	1,304.00	+0.38	-0.74
커피	213.20	-1.84	+1.50	USD/KRW NDF1M	1,308.25	+0.37	-0.2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86	-6.30	-21.02	스페인	1.859	-5.70	-36.40
한국	3.174	+4.90	-3.30	포르투칼	1.785	-5.80	-36.50
일본	0.186	+0.10	-1.00	그리스	2.903	-5.60	-18.30
독일	0.779	-3.80	-23.90	이탈리아	2.744	-13.20	-39.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